

# 김승옥의 『서울의 달빛 0장』에 대한 담화 기호학적 분석\*

홍정표\*\*

## 【 차 례 】

- I. 머리말
- II. 담화적 접근
- III. 수사학적 접근
- IV. 긴장 도식 접근
- V. 현상학적 접근
- VI. 맺음 말

## 국문초록

그레마스를 중심으로 한 서사 기호학은 정념 기호학을 거쳐 담화 기호학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독자적으로 풍타닐이 정립한 담화 기호학의 관점은 활동 중인 담화, 살아 있는 담화, 생성 중인 의미작용이다. 담화 기호학은 기존 연구의 중심이었던 불연속성에서 연속성으로 이동하며, 발화되고 있는 담화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구축하고, 그 동안 많이 연구되지 않은 감각과 지각, 발화행위와 발화작용에 다시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럼으로써 문학적 담화는 특정한 형식을 나타내는 개인적인 발화로 접근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제 1회 이상(李箱) 문학상 대상인 『서울의 달빛 0장』을 담화 기호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조명해 보는 것이다. 이 중편소설은 1960년대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등단한 김승옥의 후반기 작품에 해당한다. 우선 담화적 접근에서는 텍스트를 연동작용 → 분리작용 → 재연동작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수사학적 접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7040287)

\*\*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근에서는 표준수사도식 3단계를 인용된 텍스트에 적용하여 보았다. 그 다음 텍스트 전체 줄거리의 변화를 긴장 도식에 표현하였고, 마지막으로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텍스트에서 외수용적 지각과 내수용적 지각이 신체에 의해 연결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열쇠어 : 규모, 발화행위, 발화 현동태, 방향성, 상승 도식, 위치 장, 지시소, 지향, 포착, 하강 도식.

## I. 머리말

1960년대 그레마스(A. J. Greimas)에 의해 창시된 서사 기호학은 정념 기호학을 거쳐 담화 기호학으로 발전하였다. 서사 기호학은 러시아의 설화 형태론을 도입하고 수정하여 방법론의 체계화를 정립하였고, 이 방법론의 적용을 텍스트 자체에 국한시키는 내재적 연구와 구조주의적 연구를 이루었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행동의 통사적 및 의미적 구조를 규명하였으나, 감성적인 요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념이 기호학과 구조주의의 관심 영역이 되어서 1991년에는 그레마스과 그의 수제자 폰타닐이 『정념의 기호학(*Sémiotique des passions*)』을 발간하였다. 정념 기호학의 목표는 텍스트에 무질서하게 표출되어 있는 정념에서 질서 혹은 불변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고, 이러한 불변의 내재적인 구조를 체계화할 수 있는 메타언어(*métalangue*)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조주의 기호학은 현상과 대립의 연속적 변조(*modulations continues*)와 점이적 긴장(*tensions graduelles*)이 지배하는 단계를 무시하고, 불연속적 현상과 이산적 대립이 지배하는 단계부터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정념 기호학의 선조인 층위에서 변조와 긴장을 취급하였으나, 이러한 것은 대체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담화 기호학에서 감각적이고 인상적인 속성의 불안정하고 생성 중인 의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

제 1회 이상(李箱) 문학상 대상인 『서울의 달빛 0장』<sup>1)</sup>은 1960년대 새로운 문체의 미학,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등단한 김승옥의 중편소설로 후반기 작품에 해당된다. 김승옥은 일상적 개인의 내면세계에 주목하여 그 개인의 의식을 철저히 파헤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작가보다도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작가이다.

이 소설은 뛰어난 통찰력과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으로 인간의 문제를 그려냈으며, 참신한 구어체 문장으로 내적 체험의 시간을 치밀하게 재구성한 플롯이 돋보이고 있다. 또한 1970년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주체와 사회의 갈등 상황을 내면 의식으로 형상화하여 문제의식을 끌어낸 작품으로 그 시대 삶에 대한 은유가 담겨 있는 소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을 담화 기호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조명하며, 담화적, 수사학적, 긴장 도식, 그리고 현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sup>2)</sup>

---

1) 김승옥, 『김승옥 소설 전집 1』, 문학 동네, 2012, 374쪽-411쪽.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나’는 우연히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 안에서 연예인 한영숙의 옆 좌석에 앉게 되고 운명적 예감을 느꼈다.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지만, 신혼 첫날 밤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심적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술자리에 그 여자가 호스티스로 나타나고 결국 그들은 헤어지고 말았다. 그 후 대학 강사의 자리도 그만둔 후 매우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활에 대해 허무감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여자를 방송국까지 태워다 주고 싶은 마음에 아파트를 팔아서 최고급 승용차를 샀다. 남은 돈을 통장으로 만들어 그 여자에게 주며 아파트로 가끔 놀러가도 되겠냐고 묻자, 이 말에 대한 충격으로 그 여자의 콧구멍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 내렸다. 그 여자는 이제 그가 자신을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처럼 애인으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한 것이었다. 그가 약국에 간 사이 그 여자는 통장을 찢어버리고 사라졌고, 그는 찢어진 종잇조각들처럼 그 여자와의 완전한 결별을 실감했고 중오의 고통도 찢겨져 버렸다.

2) 담화 기호학은 적용 가능성이 많은 풍요로운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을 『서울의 달빛 0장』에 반드시 적용해서 분석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연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다른 작품에도 널리 적용하려고 한다. 다만 지난 연구에서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분석하였고, 이 작품을 읽은 후 담화 기호학 이론으로 적용이

## Ⅱ. 담화적 접근

담화란 기호학의 분석 단위이며, 활동 중인 발화인데 현존의 활동으로 간주되며, 문장의 집합체, 조직된 이야기의 집합체, 발화행위의 산물로 규정된다. 이렇게 담화가 문장의 집합체라 하더라도 그 의미작용은 이를 구성하는 문장 의미작용의 결합이거나 합계의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담화의 의미작용은 용어 간의 차이, 대립, 표현이나 형상소에 기반을 둘 수 있는데, 의미는 단지 변형을 통해서만 포착될 수 있다.

담화 연구의 선구자 방브니스트(Benveniste)는 담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담화란 화자와 청자를 전제하면서, 화자가 청자에게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모든 발화행위를 말한다. <sup>3)</sup>

담화는 그 산물인 발화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통사적 형태와 술어적 방향성(orientation)을 지닌다. “이것은 계속 새로운 형상소를 창조하고, 다른 담화가 그 전에 강화시킨 체계의 방향을 바꾸거나 변형시키는 데 기여한다”.<sup>4)</sup>

담화 현동태(instance de discours)<sup>5)</sup>는 화자가 랑그를 파롤로 실현하여 나타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방브니스트는 담화를 일종의 활동으로 지칭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담화의 관점에서 활동은 기호 기능을 생산하는 발화 활동을 말한다. 담화 현동태는 감각적인 신체, 인간의 현존이며, 위치 장(champ positionnel),<sup>6)</sup> 행위소<sup>7)</sup> 등 소수의 특성을

---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분석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3) 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Gallimard, 1974, p.242.

4) J.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9, p.85.

5) 언어학에서 instance는 보통 현실태로 번역하지만, 기호학에서는 주체의 존재태 가운데 mode actualisé를 현실태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와 구별하기 위해 instance는 현동태로 한다.

포함한다. 이것은 지시적 위치 결정, 연동작용(embrayage)과 분리작용(débrayage) 등 발화의 기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담화의 실현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담화 현동태의 첫 번째 기본 활동은 신체의 위치 결정(prise de position)이다. 담화 현동태는 외수용적 세계(표현 면)와 내수용적 세계(내용 면) 사이에 분배를 실행하여 위치를 결정하며 현존의 장을 세운다. 이렇게 담화 현동태는 자신의 위치를 발화하면서 현존을 부여받는데, 위치 결정은 다른 모든 작용의 기점으로 사용된다.

첫 번째에서 담화의 지시소(deixis, 공간, 시간, 발화 행위자)는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현존의 감각적 경험, 지각적이고 정서적인 경험과 즉시 연결된다. 지시소는 지각적인 감각의 큰 차원인 강도와 범위의 위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강도의 경우 위치 결정은 지향(visée)이며, 범위의 경우 위치 결정은 포착(saisie)이라 할 수 있다.

담화 현동태의 두 번째 기본 활동은 위치 이동으로 지시(référence), 연동작용과 분리작용이 있다. 첫 번째 활동인 위치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시가 작동하는데, 다른 위치들이 식별되어 위치 결정과 관계 맺는다. 분리작용은 원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이행을 수행하고, 이 작용에 연결된 동위성(행위자적, 공간적, 시간적, 인지적, 정서적)의 다양한 단절이 기본 조작의 발현으로 나타난다.

분리작용은 이점의 방향성을 띠는데, 이 작용 덕분에 담화 세계는 현존의 단순한 체험(vécu)에서 분리된다. 담화는 분리작용에서 강도는 약해지고 범위는 확대되며, 새로운 공간과 시간이 탐색되는 동시에 다른 행위소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분리작용은 외연의 전개로 나타나며, 담화 현동태를 복수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방된 새로운 담화 세계는

---

6) 주체가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한다. 예컨대 서사도식에서 계약을 협상할 때나 검증할 때 발령자/수령자 관계가 <위치 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주체가 행동을 개시할 때는 <위치 장>의 중심이 주체/대상으로 이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7) 위치 결정의 조작자를 말한다.

최소한 잠재적으로 무한한 공간, 시간, 행위자를 포함하게 된다.

반면에 연동작용은 연접의 방향성을 띠며, 이 활동으로 담화 현동태는 원래 위치를 되찾고자 한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현존의 단순한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담화 현동태는 이 같은 위치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것의 가상체를 구축할 수는 있다. 연동작용은 지시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강도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범위를 포기하고 담화 현동태를 새로이 집중시켜 강도를 높인다.<sup>8)</sup>

『서울의 달빛 0장』의 전체 구성을 연동작용과 분리작용으로 분석해보면, 이야기는 한 미혼남의 다소 무모한 고급차 구매로부터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다음 쪽(375쪽)<sup>9)</sup> 9째 줄 ‘생각하며 나는 픽 웃었다’까지 연동작용이다. 그 다음 대목 ‘팔 개월 동안 내 아내였던 여자는’에서부터는 분리작용이 일어나 주인공은 과거를 회상하여 아내와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이혼 후의 생활과 사고를 통해 여자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분리작용으로 새로운 공간과 시간이 탐색되고 다른 행위소들(아내, 어머니, 형님)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분리작용은 다원화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서울의 달빛 0장』은 연동작용 → 분리작용 → 재연동작용 → 분리작용 → 재연동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텍스트에서 분리작용은 두 번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분리작용은 앞에서 언급하였고, 두 번째 분리작용은 ‘이건 거짓말이었다’(381쪽 11째줄)부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406쪽 10째줄)까지이다. 또한 재연동작용도 두 번 이루어지는데 ‘너한테 차가 왜 필요하니?’(378쪽 17째줄)에서부터 ‘네, 그 친구 집에 가서 옛날 이야기하며 ……’(381쪽 10째줄)까지와, ‘차가 도착한 것 ~’(406쪽 11째줄)에서부터 끝까지이다.

다시 말해, 담화의 의미는 단지 변형을 통해서만 포착될 수 있으며, 담

---

8) *Op. cit.*, pp.97-99 참고.

9) 김승옥, 앞의 책의 쪽수.

화 현동태의 첫 번째 기본 활동은 신체의 위치 결정이고 두 번째 기본 활동은 지시, 연동작용, 분리작용이다. 분리작용은 과거의 회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범위가 넓고 강도는 약한 반면, (재)연동작용은 작가의 현재 사실을 집중해서 말하므로 범위는 좁고 강도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III. 수사학적 접근

1970년대부터 구조주의 의미론에 의해 수사학은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문채(文彩, figure)의 유형적 접근은 역동적인 관점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담화 기호학에서는 수사학의 연구 방향을 크게 전환하였는데, 수사학적 차원은 개별적인 텍스트에 고유한 발화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문채와 전의는 발화행위(énonciation)와 발화 현동태(instance énonciative)의 지배를 받으며, 발화행위는 전체 담화가 조직되는 장소이고, 문채의 생성을 책임지는 현동태, 더 나아가 합리성과 가치론을 추구하는 유의미적 집합체 형성을 책임지는 현동태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발화적 접근은 주체에게 언어 체계를 변형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수사학의 문채는 어떤 단어에 고유의 뜻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하는데, 인지된 단계와 지각된 단계라는 두 규모로 이루어지고 두 규모 간의 관계는 지향성으로 방향지어진다. 문채가 만들어질 때, 인지된 단계는 기점(source)으로, 지각된 단계는 목표(cible)가 되며, 각 담화는 문채의 방향, 즉 기점과 목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기점 행위소와 목표 행위소 외에 두 행위소 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통제 행위소(actant contrôle)가 있다. 예컨대 통제 현동태(instance de contrôle)가 장애물(obstacle)이라면, 기점 행위소와 목표 행위소 사이에

긴장을 가져오는 장애물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물은 <내 마음은 호수다>라는 은유처럼 단순한 의미론적 차이일 수도 있고, <햄 샌드위치가 계산서를 요구한다>라는 환유처럼 행위소적 차이일 수도 있다.

환유는 하나의 의미론적 역할에서 다른 것으로 담화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다. 위의 예는 행위소 주체(햄 샌드위치)에서 행위소 대상(햄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으로의 이동을 가정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형 행위소가 아니라 위치 행위소<sup>10)</sup>의 이동이다. 발화체의 주체(햄 샌드위치)가 문채의 기점이 되고, 발화체의 대상(햄 샌드위치 주문자)이 문채의 목표가 된다. 이 경우 장애물은 주문 요리(햄 샌드위치)와 주문자(손님)의 차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통사적 위치 행위소를 제시함으로써 전보다 더 분명하게 수사학적 차원의 담화 방향성의 조절에 대해 알 수 있다.

모든 문채는 기점, 목표, 통제<sup>11)</sup>의 세 행위소를 함축하는데, 풍타닐은 이를 바탕으로 대치(confrontation), 지배(domination), 해소(résolution)라는 표준수사도식(schéma rhétorique canonique) 3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세 가지 담화 행위에 해당하는 통사적 구성요소로 대치는 기점과 목표의 현존화 행위 단계, 지배는 기점과 목표 중에서 한 가지로 입장을 결정하고 수용하는 위치결정과 수용행위 단계, 해소는 해석 행위 단계에 해당하며, 모두 문채에 내재된 지각의 강도에 바탕을 둔다. 첫 단계 대치는 긴장을 일으키고, 둘째 단계 지배는 긴장의 강도를 높이며, 셋째 단계 해소는 긴장의 완화를 가져온다.<sup>11)</sup>

이러한 표준수사도식 3단계를 은유가 많이 표출되어 있는 텍스트에 적용하여 분석해 보면, 첫 부분에서 주인공 형님의 운전사는 자동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0) 위치 장의 행위소를 말하는데, 의미작용의 출현에 선행되는 최초의 규칙과 방향성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이 되기 전에 행위의 기점과 목표를 말한다.

11) J. Fontanille, *Sémiotique et littérature*, PUF, 1999, pp.96-99 참고.



“쇠로 되고 바위가 달렸다 뿐이지 살아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좋은 사료를 먹여 주고 과로시키지 말고 병이 났나 살펴봐 주고 외양도 항상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김승옥 소설 전집 1』, 문학 동네, 2012, 375쪽)

위 인용문에서 자동차는 살아 있는 말에 비유되고 있다. 여기에서 표준수사도식의 첫 번째 단계 대치는 각각 기점과 목표가 되는 두 의미 영역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말은 /동물/에 속하고 자동차는 /물질/에 속하므로 이러한 차이에서 대치가 일어난다. 두 번째 단계 지배는 발화행위에 의해 채택된 지각적 입장의 결과인데, 물질 영역의 동위성보다 오히려 동물 영역의 동위성에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 보장된다. 마지막 단계 해소는 유추의 형태를 띤다. 담화는 해석자에게 유추적 변형을 이용하여 물질 영역에서 동물 영역으로 이동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기점 현동태와 목표 현동태는 그들의 속성을 서로 교환한다. 이와 같이 동물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위치 행위소가 되었으므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물질 영역은 동물 영역이 제공하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좋은 사료를 주고, 과로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 등)을 수용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동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기사의 말처럼 주인공이 자동차와 동일시되는 말(여자)을 조금씩 이해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sup>12)</sup>

이 기사는 말에다 비유하며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여자에다 비유하며 들었다. 문득, 결국 나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12) 결혼과 이혼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로 규정될 수 있는 1970년대 사회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고 대신 돈과 가짜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두 남녀의 만남과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제목에서 0장이란 다음 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장이며, 소설 속의 남자와 여자가 호전될 수 없는 상황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1977년에 발표된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출판되었음에도 현대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아, 세대를 초월한 문학의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뚜렷이 내세울 만한 용도도 없이 어쩐지 자꾸만 차가 갖고 싶더라니, 생각하며 나는 픽 웃었다.(375쪽)

앞에서와 달리 이 인용문에서 주인공은 자동차를 여자에 비유하고 있다. 표준수사도식의 첫 단계에서 여자는 /인간/이고 자동차는 /물질/이므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치된다. 둘째 단계에서는 인간 영역과 물질 영역 중 전자의 동위성에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 보장된다. 셋째 단계 해소에서 담화는 해석자에게 물질 영역에서 인간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인간인 여자는 기점 현동태가 되고 무생물인 자동차는 그것의 목표 현동태가 되며, 이 두 가지는 위치 행위소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결국 후자는 전자가 가져다 준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을 받아들임에 따라, 주인공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은 아내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나한테 왜 자동차가 필요할 것인가? 그런데 이기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동차를 여자에 비유해보고 있으려니, 그 구매 동기를 무작정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던 차가 실은 아내의 대체물이라고 문득 깨달아지며 내 속에 굴을 파고 등우리를 틀어 앉아버린 여자라는 독충에 대하여 짓이겨주고 싶은 혐오감이 드는 것이었다.(378쪽)

앞서 인용한 대목에서 주체는 아내를 갖고 싶고 필요로 하고 있었다. 반면에 여기에서 주체는 아내를 독충에 비유하고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주체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vouloir-être conjoint/(아내와 연결이기를 원함))과 혐오하는 마음(/ne-pas-vouloir-être conjoint/(아내와 연결이기를 원치 않음))이 서로 잠재적으로 갈등하고 부딪치는 충돌이 수없이 일어난다.

주체가 아내를 독기 품은 벌레인 독충에 비유한 것을 표준수사도식 3 단계로 분석해 보면, 첫 단계, 대치가 일어나는 것은 기점과 목표라는 두

의미 영역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기점 현동태인 독충은 독기를 품은 벌레로 /곤충/에 속하고, 목표 현동태인 여자는 /인간/인 두 의미 영역의 차이를 말한다. 둘째 단계, 지배에서는 발화행위를 통해 채택된 지각적 입장의 결과로서 인간 영역의 동위성보다 곤충 영역의 동위성에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 부여된다. 셋째 단계, 해소는 유추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담화는 해석자에게 유추적 변형을 이용하여 인간 영역에서 곤충 영역으로 이동할 것을 제시한다. 특히 인간 영역은 곤충 영역이 제공하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동우리를 틀어 앉아버린’이라는 집요함과 ‘독충’이라는 혐오스러움이 결합되어 독기를 품은 벌레가 된다. 즉 여기에서 주체는 대상에 대해 혐오스러운 감정의 강도를 극대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변기에 앉아 핏덩어리를 쏟고 있는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가, 태아의 자연유산임과 의사의 입에서 아내의 인공 유산의 경험이 많음을 알고 났을 때, 이제부터 아내는 나에게 도깨비들이 실컷 뜯어 먹다 싫증이 나서 던져 준 썩은 고깃덩이로 지나지 않았다.(39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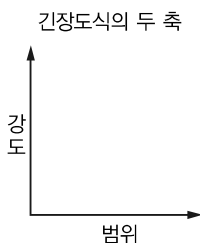
위 인용문에서 썩은 고깃덩이는 아내의 한 모습으로, 아내는 도깨비들이 실컷 먹다 싫증이 나서 던져 준 썩은 고깃덩이로 비유되고 있다. 이 경우 썩은 고깃덩이는 기점 현동태인 반면, 아내는 그것의 목표 현동태이다. 표준수사도식 첫 단계에서 기점 현동태와 목표 현동태는 공유된 특성을 바탕으로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썩은 고깃덩이 /물질/ 영역과 아내 /인간/ 영역 중 전자의 동위성에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 부여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목표 현동태인 아내는 기점 현동태인 썩은 고깃덩이의 감각적, 직관적 특성을 부여받아 그와 유사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깨비에 대해서는 원래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도깨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는 풍요의 기운, 신성한 것으로 간

주되는 반면, 부정적 인식에서는 음습하고 괴기한 힘을 가진 존재로 간주된다. 위에 등장한 도깨비들은 /비도덕적 주체들/로 정상적인 것을 흐트러 놓는 존재, 즉 돈을 주고 성을 사는 남자들을 비유해 놓은 것이며, 따라서 부정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두 의미 규모 /도깨비들/과 /돈을 주고 성을 사는 사람들/에 공통되는 원형 의미소(archisémmèmes)는 /부정적 존재/인데, 이는 담화 현동태(instance de discours)가 활성화하는 특별한 지각이라 할 수 있다.

#### IV. 긴장 도식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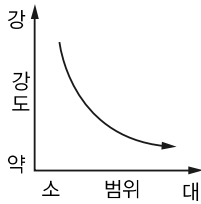
후기 그레마스 기호학의 주요 분석 장치인 긴장 도식은 폰타닐과 질베르베르그에 의해 도입되었다. 기호학의 다른 분석 장치, 즉 기호 사각형, 행위소 모델 등과 마찬가지로, 긴장 도식은 하나의 개념적 구조인 동시에 이 구조의 시각적 표상이다. 주어진 가치는 지각 활동의 두 발랑스인 강도(intensité)와 범위(étendue)의 결합에 의해 긴장 도식에서 이루어진다. 도식을 설정함에 있어서 강도를 세로 좌표에, 범위를 가로 좌표에 놓는다면, 두 축의 시각적 표상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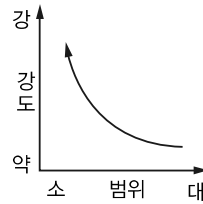
지각은 감각적인 영역에서 조직되는데, 두 기본 차원인 강도와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강도와 범위의 영역을 선택하여 관계 맺는 것

을 상관관계라고 한다. 강도와 범위 중 한 가지의 상승이 다른 것의 상승을 수반할 경우에는 순행상관관계이며, 반대로 그 상승이 다른 것의 감소를 가져오면 역행상관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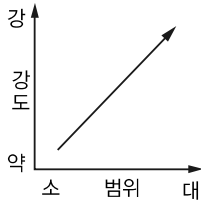
더불어 긴장관계의 순행적 혹은 역행적 성격과 시간 내에 그 방향성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기본 긴장 도식<sup>13)</sup>이 표현된다. 모든 연속은 원칙적으로 시간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긴장 도식은 강도, 범위, 시간적 위치의 세 가지 변수를 결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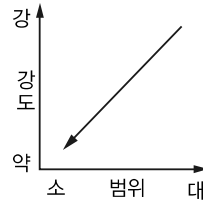
a. 하강도식



b. 상승도식



c. 증해도식



d. 감소도식

위 도식에서 주목할 수 있는 대로 역행상관관계에 대해서는 a와 b처럼 타원의 곡선이 사용되고, 순행상관관계에 대해서는 c와 d처럼 직선이 사용된다. 이 도식은 감각적인 것(강도)과 가지적인 것(범위) 사이에 균형의 변화로 규정된다. 강도에 속하는 범주는 힘, 에너지, 정동 등이며, 범위에 속하는 범주는 수량, 시·공간, 인지 등이다.

13) *Op. cit.* pp.111-112 참고.

소설 텍스트에서 주체와 대상 사이 소유의 문제를 긴장 도식에 표현해 보면, 세로 좌표에는 강도, 가로 좌표에는 범위를 위치시키는 긴장 도식에 독점적 소유와 공유적 소유를 위치시킬 수 있다. 강도의 축은 감정의 강도와 관계되고, 범위의 축은 주체의 감정의 대상인 사람 수와 관계된다. 따라서 독점적 소유는 강도는 높고 범위는 좁은 위치에 표시될 것이며, 반면에 공유적 소유는 강도는 낮고 범위는 넓은 위치에 표시될 것이다. 또한 주체의 대상에 대한 소유가 공유적 소유에서 독점적 소유로 변화할 때는 앞에 인용한 기본 긴장 도식 중에서 b번 상승 도식에 해당할 것이고, 반대로 독점적 소유에서 공유적 소유로 변화할 때는 a번 하강 도식에 해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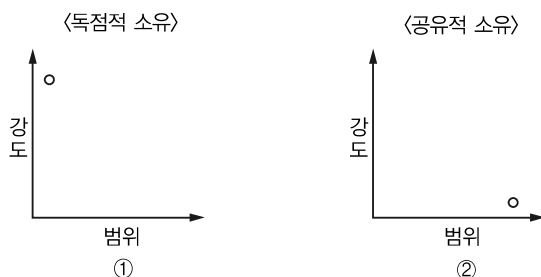
이 작품에서 주체인 주인공 ‘나’는 대상인 한영숙과 결혼한 후 당연히 그녀에 대해 독점적 소유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devoir-être/(대상은 주체의 독점적 소유이어야 함)). 하지만 직업이 연예인인 대상은 알고 지내는 남자들이 많다. 아내에 대한 독점적 소유가 불가능하자 주체는 대상에 대해 불만에 사로잡힌다(/ne-pas-pouvoir-être/(대상은 주체의 독점적 소유일 수 없음)). 결국 주체와 대상은 헤어지게 된다. 대상과 헤어진 후, 주체는 내심의 분열을 겪는다. 주체는 대상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며 대상을 다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vouloir-être conjoint/(대상과 연결하기를 원함))과 원치 않는 마음(/ne-pas-vouloir-être conjoint/(대상과 연결하기를 원치 않음))으로 인해 갈등과 고민에 빠진다.

주체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구입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내가 일하는 방송국으로 찾아 간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 승용차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을 아내에게 건네주려 한다. 그러나 “저어... 나... 영숙이 아파트로 가끔 놀러 가도 되겠어?”(410쪽) 라는 말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는 이제 한영숙을 아내로 수용하기 보다는 애인으로 수용하고자 할 뿐이다. 하지만 대상은 그런 제안에 대한 충격으로 갑자기 한 쪽 콧구멍에서 검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 내렸다. 대상이 흘린 피

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버림받은 대상의 슬픔이며,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애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괴로움의 표출이다. 재결합을 제의받았다면 아내로 인정받는 것이기에 만족스러웠을 텐데 그것이 아닌 것이다.

주체가 약속을 사기 위해 약방으로 달려 간 사이 대상은 통장을 갈기 갈기 찢어버리고 사라졌다. 찢겨진 통장은 대상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의 표현이면서 둘 사이 관계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 주체는 대상을 /vouloir-faire/(돈으로 소유하기를 원함)인 반면, 대상은 주체가 자신을 /ne-pas-vouloir-faire/(돈으로 소유하기를 원치 않음)로 두 양태가 서로 상충되면서 주체와 대상은 완전히 결별하게 된다. 이렇게 이 작품은 모든 것을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부패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환멸을 표현하고 있다.

텍스트는 한 마디로 소유의 문제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에 주체는 대상에 대해 독점적 소유, 다시 말해 높은 강도에 매우 적은 범위(아래 도표의 ①에 해당함)로 생각했다. 하지만 주체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불러 나온 대상을 보자, 그녀가 자신만의 독점적 소유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공유적 소유임(아래 도표의 ②에 해당함)을 알고 분노하는데, 이 사실이 텍스트의 결말을 가져온다. 주체의 대상에 대한 욕망은 독점적 소유(아래 도표의 ①번)에서 공유적 소유(아래 도표의 ②번)로 이동하며, 네 가지 기본 긴장 도식 중에서 ‘a.하강 도식’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긴장 도식은 다양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인 만큼, 다른 도식보다 훨씬 더 적용 가능성이 광범위한 도식임을 알 수 있었다.

## V. 현상학적 접근

모든 것이 활동 중인 담화의 관점에서는 신체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다. 신체는 감각적인 경계로 외부 영역과 내부 영역을 결정한다. 주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위치를 정하는 세계에서, 그는 외수용적 세계, 내수용적 세계, 자기수용적 세계 간의 분리를 정한다. 말하자면 위치가 새로 정해질 때마다 신체는 일련의 외수용적-내수용적-자기수용적 지각을 다시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외수용적 지각은 외부 세계나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각을 의미하고, 내수용적 지각은 인간 내부 세계의 지각으로 개념이나 감정을 말한다. 그리고 자기수용적 지각은 외수용적 지각과 내수용적 지각에 동시에 속하는 신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텍스트에서 두 지각이 신체에 의해 연결되는 대목을 살펴보면,

차가 도착한 것은 오후 세 시 쯤이었다. 차임벨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 보니 이기사가,

“백마가 아주 늘씬합니다. 고분고분 말귀도 잘 알아듣고요.”

나는 흰 색으로 주문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빨을 닦던 종이라 칫솔을 입에 문 채 베란다로 나가서 차를 굽어 봤다. 하얀 차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고등학교일 때 공중 목욕탕에서 칸막이 사이로 우연히 눈에 뜨인 여자의 알몸을 보았을 때도 머릿속의 모든 것이 기화(氣化)하여 순식간에 새어 나가 버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었다.(406쪽)

기호 분석에 있어서 표현 면과 내용 면은 기호 기능으로 결합되기 전에는 표현의 실질, 내용의 실질에 불과하지만, 두 면이 기호 기능으로 결



합되면서부터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의 형식으로 전환된다. 인용문에서 ‘하얀 차체’는 주체의 기억 속 과거의 모습과 연결되기 전에는 순전히 실질일 뿐이지만, 두 면이 기호 기능으로 연결된 후에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의 형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주체는 무의식적 기억을 떠올리는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시각을 통한 분리작용으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이는 시각에 의한 기억의 재생력이다. 주체에게 ‘하얀 차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때까지 잊고 있었던 ‘여자의 알몸’이 다시 현재로 의미화하여 의식의 표층에 되살아난다. 이 경우 무의식적 기억을 떠올리게 한 ‘하얀 차체’는 외부 세계를 지칭하는 표현 면이고, 의식의 심저에 남아 있던 ‘여자의 알몸’은 내부 세계를 지칭하는 내용 면이며, 이 두 면은 신체에 의해 결합된다. 또한 표현 면과 내용 면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위치 결정은 지향과 포착으로 굴절하는데, 표현 면인 ‘하얀 차체’는 포착된 것이고, 내용 면인 감각 능력에 의해 주체의 내부에서 지향된 것은 고교 시절 우연히 눈에 뜨인 ‘여자의 알몸’이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은 그것을 지각하는 사람에게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텍스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주체는 대상과의 첫 만남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어쨌든 속눈썹을 떨며 내 눈을 응시하던 그 여자의 눈길은 내 운명을 결정했다. 그 순간에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해버린 것이었다. 마음과 마음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마주치는 눈길이었구나고 생각하며 (389쪽)

주체는 대상과 완전한 이별을 할 때도 위와 마찬가지로 대상의 눈길을 통해서이다.

“저어 ..... 나 ..... 영숙이 아파트로 가끔 놀러가도 되겠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여자의 눈이 깜박거리며 내 눈을 뻔히 응시했다.

비행기 안에서처럼. .... 그렇다. 이 여자가 저런 눈이 될 때마다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했던 것이다. 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갑자기 그 여자의 한쪽 콧구멍에서 검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다.

(410쪽)

첫 번째 인용문에서 그 여자가 속눈썹을 떨며 주체를 응시하는 눈길과 두 번째 인용문에서 그 여자가 눈을 깜박거리며 주체를 응시하는 눈길의 의미는 매우 다르다. 그 여자가 그렇게 주체를 응시할 때마다, 주체는 최고도로 긴장하게 되고 둘 사이의 관계는 새롭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속눈썹을 떨며 내 눈을 응시하던 그 여자의 눈길’은 표현 면인데, 이것은 주체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일으키는 내용 면으로 바뀌면서 주체는 대상을 사랑할 운명임을 스스로 정해버렸다. 이렇게 표현 면과 내용 면을 연결시키는 것은 자기수용적 지각의 역할로 지각 주체의 신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두 번째 인용문을 살펴보면 그 여자는 ‘가끔 놀러가도 되느냐’는 주체의 말을 듣고 눈을 깜박거리며 상대를 응시하는데, 이는 표현 면이다. 표현 면은 자기수용적 지각의 역할에 의해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자존심이 상해 분노를 일으키는 내용 면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다시 지각 주체의 신체를 통해 표출되는데 한 쪽 콧구멍에서 검붉은 피를 흘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주체와 대상의 만남과 이별이 자기수용적 지각의 역할에 의해 그 여자의 표정 속에 뚜렷이 표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 VI. 맺음 말

지금까지 김승옥의 『서울의 달빛 0장』에 대해 담화적, 수사학적, 긴장 도식, 현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담화적 접근에서는 담화와 그 현동태의 두 가지 기본 활동을 알아보았고, 텍스트를 연동작용, 분리작용, 재연동작용으로 분리해 보았다. 분리작용은 과거의 회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범위가 넓고 강도는 약한 반면, (재)연동작용은 작가의 현재 사실을 집중해서 말하므로 범위는 좁고 강도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사학적 접근에서는 문채와 전의가 발화행위와 발화 현동태의 지배를 받고, 이러한 발화적 접근이 주체로 하여금 언어 체계를 변형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은유는 공유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대응 관계를 형성하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 보장된다. 텍스트의 다양한 은유를 대치, 지배, 해소의 3단계에 적용하여, 표준수사도식이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긴장 도식 접근에서는 처음에 주체는 대상에 대해 독점적 소유라고 생각했으나, 그 여자가 자신만의 독점적 소유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의 공유적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네 가지 긴장 도식 중에서 하강 도식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외수용적 지각이 외부 세계나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각을 의미하고, 내수용적 지각은 인간 내부 세계의 지각으로 개념이나 감정을 말하며, 주체와 대상의 만남과 이별이 자기수용적 지각의 역할에 의해 그 여자의 표정 속에 뚜렷이 표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네 가지 접근은 모두 연속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는 랑그(langue)가 아니라 실제적 언어 사용인 파롤(parole)을 분석하는 도구들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풍타닐의 최근 관심사인 자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접근으로 보여준 신체와의 관계, 여성과 성에 관한 은유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담화 기호학의 관점은 활동 중인 담화, 살아 있는 담화, 생성 중인 의미 작용이다. 기존의 기호학에서 연구하는 것처럼 의미의 최소 단위를 관찰하고 재단하는 문제를 접어 두고, 담화의 구축 중이고 생성 중인 유의미적 집합의 문제로 이를 대체하면, 연구의 중심이 불연속성에서 연속성으로 이동하게 되며, 발화되고 있는 담화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구축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문학적 담화는 특정한 형식을 나타내는 개인적인 발화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감각과 지각, 발화행위와 발화작용에 다시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명석, 『김승옥 문학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 사상, 2004.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_\_\_\_\_, 『기호, 리듬, 우주』, 인간사랑, 2007.
- 김승옥, 『김승옥 소설 전집 1』, 문학 동네, 2012.
- 김형효, 『메트로 뽕띠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민음사, 1998.
-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 한국기호학회, 『신체 인문학의 새로운 지형 : 몸, 감각, 미디어』, 봄철국제학술대회, 2013, 4. 28.
- \_\_\_\_\_, 『소쉬르 사상의 인문학적 유산』, 가을학술대회, 2013, 11. 2.
- 홍정표, 「정념의 기호학과 담화 기호학의 상호보완적 고찰」, 『기호학 연구』, 제28집, 한국기호학회, 2010, 283-319쪽.
- \_\_\_\_\_, 「담화 기호학 연구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37집, 한국기호학회, 2013, 303-336쪽.
- \_\_\_\_\_, 『정념 기호학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 Arrivé, M., *Linguistique et psychanalyse*, Klincksieck, 1987. (최용호 옮김, 『언어학과 정신분석학』, 인간사랑, 1992).
- Benveniste, 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Gallimard, 1966.
- \_\_\_\_\_,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Gallimard, 1974.
- Fontanille, J., “Le désespoir”, in *Actes Sémiotiques*, II, 16, 1980.
- \_\_\_\_\_, *Les espaces subjectifs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de l'observateur*, Hachette, 1989.
- \_\_\_\_\_, “Le schéma des passions”, in *Protée*, Québec, vol. 21, 1993.
- \_\_\_\_\_, *Sémiotique du visible*, P.U.F., 1995.
- \_\_\_\_\_, *Sémiotique et littérature*, 1998. (김치수·장인봉 옮김, 『기호학과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 \_\_\_\_\_,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9.
- \_\_\_\_\_, “Sémiotique des passions”, in Anne Hénault, *Questions de sémiotique*, PUF, 2002.

- \_\_\_\_\_, *Pratiques sémiotiques*, PUF, 2008.
- \_\_\_\_\_, *Corps et sens*, PUF, 2011.
- Fontanille, J., & Zilberberg, C., *Tension et signification*, Mardaga, 1998.
- Greimas, A. -J.,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 \_\_\_\_\_, *Du sens II*, Paris, Seuil, 1983. (김성도 옮김, 『의미에 관하여』, 인간사랑, 1997)
- \_\_\_\_\_, *De l'imperfection*, Panlac, 1987.
- Greimas, A.-J. & Courtés, J.,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Hachette, 1979.
- Greimas, A. -J. & Fontanille, J., *Sémiotique des passions, Des états de choses aux états d'âme*, Paris, Seuil, 1991. 유기환, 최용호, 신정아 옮김, 『정념의 기호학』, 강, 2014.
- Hébert, L., *Dispositifs pour l'analyse des textes et des images*, PULIM, 2009.
- Hénault, A., *Les enjeux de la sémiotique*, Paris : P.U.F., 1979. (홍정표 옮김, 『기호학으로의 초대』, 어문학사, 1997)
- \_\_\_\_\_, *Narratologie - Sémiotique générale*, Paris : P.U.F., 1983. (홍정표 옮김, 『서사, 일반 기호학』, 문학과지성사, 2003)
- \_\_\_\_\_, *Histoire de la sémiotique*, coll. Que sais-je?, Paris : P.U.F., 1992. (박인철 옮김, 『기호학사』, 한길사, 2000)
- Hjelmslev, L., *Prolégomènes à une théorie du langage*, Editions de Minuit, 1971.
- Merleau-Ponty, M.,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류의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Analyse sémiotique du discours dans le *Clair de lune de Séoul*:  
*chapitre 0* de  
Kim Seung-Ok

Hong, Jeong-Pyo

La présente étude a pour but d'analyser le grand prix de la littérature Lee Sang: le *Clair de lune de Séoul: chapitre 0* (1977) de Kim Seung-Ok du point de vue de la sémiotique du discours.

Dans la sémiotique du discours, oeuvre que J. Fontanille a publié en 1999, le point de vue d'ensemble est celui du discours en acte et du discours vivant. Dans cette perspective, il préfère une schématisation de la signification en devenir à sa formalisation achevée. Il déplace l'intérêt pour les structures vers les opérations et les actes, les oppositions discrètes vers les différences tensives et graduelles.

Kim Seung-Ok est l'écrivain le plus important des années soixante. Il est apprécié pour avoir rénové la sensibilité en représentant le néant et la corruption de la vie de cette époque. Nous avons analysé son roman dans une approche du discours, de la rhétorique, du schéma tensif et de la phénoménologie.

En approche du discours nous avons pu comprendre que l'embrayage et le débrayage sont des instruments d'analyse très utiles. L'auteur a beaucoup utilisé les figures de la rhétorique. En approche de la rhétorique les métaphores dans le texte ont pu être analysées par le schéma rhétorique canonique. En approche du schéma tensif on y a représenté la possession communale et exclusive. En approche de la phénoménologie nous avons pu saisir que l'extéroceptivité(plan de l'expression), l'intéroceptivité(plan du contenu) et la proprioceptivité sont des dispositifs très efficaces pour analyser le texte.

Les oeuvres de Kim Seung-Ok sont connues pour être interprétées de façons très variées et permettre de nombreux commentaires. Notre présent article a

donc pour objet l'analyse d'une de ces oeuvres en prenant comme méthodologie celle de la sémiotique du discours qui a prouvé son efficacité pour l'étude de cette oeuvre.

Key words : grandeur, énonciation, instance énonciative, orientation, schéma de l'ascendance, champ positionnel, deixis, visée, saisie, schéma de la décadence.

투고일 : 2016. 08. 10. / 심사일 : 2016. 08. 15. / 심사완료일 : 2016. 08. 31.